

도내 중소 수출업체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

전북도-무협 전북지원

자카르타 엑스포 상담회

전북도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는 도내 중소 수출업체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8, 29일 양일간 '2021 전라북도 자카르타 엑스포(Jeollabuk-do Expo in Jakarta 2021) 비대면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전라북도 유망 수출 기업 30여개사 중·시장성 평가에 의해 선정된 17개사가 참여했으며,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에서 찾은 인도네시아 바이어 45개사와 약 100여건의 화상 상담을 진행해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

전북도와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비대면 상담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TradeKorea.com)에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해 행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외 바이어들에게 참가 기업들의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상담회에 참여한 인도네시아의



전북도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는 도내 중소 수출업체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8, 29일 양일간 '2021 전라북도 자카르타 엑스포 비대면 상담회'를 개최했다.

호텔체인·부동산그룹 바이어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만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며 "샘플 오더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바이어와 상담한 도내 기업 A씨는 "현재 유망 가능한 채널 100여개 이상 보유 중인 바이어와 상담해 진출 기회를 잡게 되었다"며 "추후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측에서 지원을 약속해 기대가 크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무역협회 이강일 전북지역본부장은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라북도와 협회 자카르타 지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번 행사를 차질 없이 개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국내에 상환에 맞춰 온·오프 마케팅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폭염 피해복구 지원, 개인 최대 1억원까지

농협은행 전북본부, 금융지원 실시... 기업은 최대 5억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소기업 및 주민을 위한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행정기관에서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피해 범위 내에서 기업은 최대 5억원,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신규자금 지원되며 최대 1.0%(농업인은 최대 1.6%)이내의 대출금리 감면과 최대 12개월의 이자납입 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된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심사결과·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기가 가능하며, 최장 12개월의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자금은 상환일이 도래하거나 5년내 도래할 농업용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피해복구자금, 시설개보수자금 등으로 개인은 최대 20억원

농업법인은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금리 1.0% 기간 12년(5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장기요 본부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농업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농협은행은 피해복구를 위해 조속히 자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폭염 금융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은행 시군지부·지점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농촌진흥청은 농협중앙회와 농업·농촌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경쟁력 있는 디지털농업을 촉진하기 위해 29일 농협중앙회(서울 중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쟁력 있는 디지털농업 촉진

농진청-농협중앙회, 5개 분야 30개 과제 추진 등 협력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와 농업·농촌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경쟁력 있는 디지털농업을 촉진하기 위해 29일 농협중앙회(서울 중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협업, 치유농업 활성화 및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을 담고 있다.

한 협력과제는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5개 분야는 ▲지능화·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농업 촉진 ▲중소농을 위한 스마트팜 연구개발 및 보급 협력 ▲지역단위 협업체계 구축으로 신기술 보급 및 현장 확산 ▲농업·농촌지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기술·정보·경영 지원을 통한 청년농업인 육성 등이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디지털농업 등 5개 분야 30개 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하고, 업무 추진 중 필요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확산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발전은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농업 시범 교육장을 공동 활용하며,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지역 농협 본부와의 업무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밖에 치유농업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현장실증 및 지역모델 개발에 협력하고, 청년농업인의 기술·정보·경영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자원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확산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발전은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농업 시범 교육장을 공동 활용하며,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지역 농협 본부와의 업무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밖에 치유농업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현장실증 및 지역모델 개발에 협력하고, 청년농업인의 기술·정보·경영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자원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 조용빈 단장은 "농촌진흥청은 연구개발 및 데이터 기반 시설이 우수하고, 농협은 거대한 생산자 조직과 판매·유통망을 갖추고 있다"며 "두 기관이 디지털농업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본부장 임기 1년 재연장 결정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오는 10월 7일자로 1년의 연임 기간이 만료되는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의 임기를 1년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안효준 본부장은 2018년 10월 부임 이후, 기금운용본부 설립(1999년) 이래 최고 수익률 11.31%를 2019년에 기록하는 등 역량을 인정받아 작년 10월 1차 연임된 바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9.70%라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고,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처음으로 모든 자산군에서 벤치마크를 상회하는 성과를 이뤘다.

한편 안 본부장은 곧 다가올 국민연금 기금 1000조원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부임 이후 현재까지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한 운용 기반 확충에 노력해 왔다. /김윤상 기자

9년동안 도내 1군 종합건설업체 '전무'

시공능력평가액 공사 결과... 계성건설, 4년 연속 1위 견협 전북도회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

대한건설협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2021년도 종합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공시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에 따르면 30일 발표한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계성건설(주)이 3015억원을 기록하며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주)신성건설(2,479억원)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으며, 작년 4위였던 (주)신일(1,844억원)이 한 단계 올라서서 3위를 기록했다. 전년도 12위였던 (유)플러스건설(802억)이 9위로 새롭게 TOP 10위권으로 진입했다.

또 지난해 50위권 밖에 있었던 (유)은송(54위→42위), 삼호토건(주)(73위→43위), (유)유백건설(52위→44위), 청목건설(주)(51위→47위)이 새롭게 50위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9년 연속 도내에 1등급 업체는 없는 가운데, 상위 50위권의 시공액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SOC물량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타지역 공사수주, 민간 상업 및 업무시설 건설 공사의 실적 증가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윤방섭 회장은 "전국적으로 1등급 업체가 58개사나 되지만 도내에는 지난 9년간 1등급 업체가 없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건설 투지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정치·금융권·업계 등이 모두 힘을 합쳐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로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공공공사의 등급별 유지계약 명부제,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급제한제 등의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2021년도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은 8월 1일부터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사무처에 방문하면 건설수첩에 가장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문건설업 시공능력평가 결과 발표

청강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위 차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30일, 도내 295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도내 전문건설업체 중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1위는 (유)청강건설(대표 김문수)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차지했고, 2위는 초석건설산업(주)(대표 박성진)의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차지했으며, 3~4위는 (유)삼신기업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유)원진일마늄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5위는 (주)유림개발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준이며, 코로나19의 영향과 도내 대형건설현장의 지역업체 참여 저조 등 전반

적인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2020년 전문건설업 기성실적신고액이 작년 대비 5.4% 감소하고 이로 인해 업체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음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김태경회장은 "지속되는 건설경기의 불황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건설산업도 많은 피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 충격이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결국 실적감소와 시공능력평가액 감소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하반기에는 백신 접종의 가속화와 보다 철저한 방역활동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회적 안정은 물론 건설산업에도 안정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공유경제 1차 작은 세미나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29일 공유경제창의학습센터·실용실에 참여한 팀과 가치있이 활성화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공유경제 제1차 작은 세미나'를 열었다.

도내 공유경제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본래 중소도시형·농촌형 공유경제 사례를 들고 토론하는 오프라인 행사로 기획했으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규모를 축소하고 온라인으로 변경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국민도서관 책꽂이(이하 국민도서관)'의 도서관장 장용 대표를 초청해 진행했다. 국민도서관은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대표 사례로, 개인이 보관하고 있지만 팔고 싶지는 않은 책들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국민도서관 사례는 공유경제를 실험 중인 도내 기업·단체의 활동에 대한 고민에 작은 실마리를 제공했다.

세미나 이후 진행된 온라인 토론에서는 참여자들의 열띤 질문이 이어졌다. 공유실험실에 선정된 군산 그림망고 김해경 대표는 "공유경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확실한 성공모델을 제시해줘서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참석 소감을 전했다. /김윤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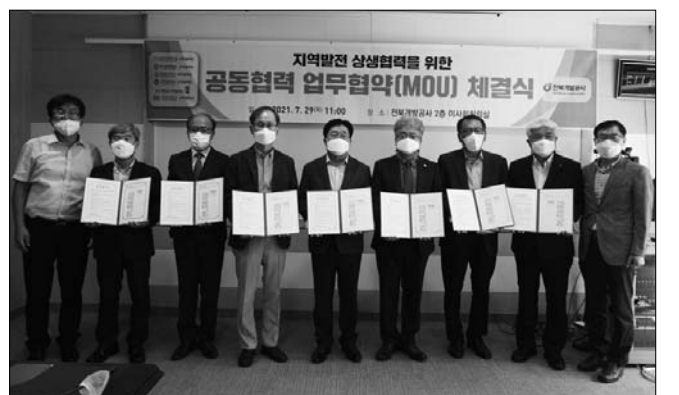
도시재생 뉴딜 성공 추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전개공, 도내 6개 대학 산학협력단과 협약 체결 뉴딜 연계 협력사업 발굴

전북개발공사와 도내 6개 대학이 전라북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본격 나서기로 했다. 전북개발공사(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는 29일 6개 대학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라북도의 창조적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혁신역량 강화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 군산대 김영철 단장, 우석대 오석웅 단장, 원광대 최병민 단장, 전북대 조기환 단장, 전주대 변주승 단장, 호원대 박형주 단장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전북개발공사는 29일 6개 대학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의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계한 산학협력사업 발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및 정보의 제공 ▲산학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 등이다.

전북개발공사(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과 도내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에 참여하는 내용과 폭을 넓히고 우리 지역색이 담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내실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천환 사장은 "지역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과 사회공헌을 위해 도내 대학 산학협력단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